

지역 소식통

부안군, 8월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운영

부안군은 올해 주민세(개인분) 2만4,810건, 2억7,200만원을 부과 고지했고, 주민세(사업소분) 2,958건, 3억4,800만원을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되며,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납부서상의 세액 및 연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탁서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 위택스, ARS(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마켓,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고창마켓(고창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고창마켓 입점 농가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통해 46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잔류농약 적정 허용 수치를 확인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지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 농산물 마크를 부여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청년사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정읍시, 청년 창업가 10명에 3년간 창업자금 최대 1500만원 지원... 21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청년의 자립과 정착기반 마련 도모를 위해 '정읍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8월 7일)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18세 이상 45세 이하) 중,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수료로 역량을 갖춘 예비 또는 1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가이다.

시는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 수료자를 1순위로 선발하고 이의 정부 또는 시 주관 창업교육 및 컨설팅 수료자를 2순위로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총 10명이며, 오는 21일까지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모에 선정된 청년창업가에게는 1년 차 사업장 공간구축과 리모델링 등

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을 지원한다. 2~3년 차에는 운영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료비나 홍보비, 임차비 등의 자금을 연 최대 500만원씩 2년간 지원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시가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읍의 많은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읍의 많은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이학수 시장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안보태세 확립" 당부

정읍시는 지난 10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3분기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한곤 정읍경찰서장, 강봉화 정읍소방서장, 주영생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정영한 정읍우체국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읍시 읍지연습 실시계획 보고 및 기관별 공지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읍지연습 실시에 따른 전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읍연습으로 정읍시와 안보 관련 유관기관의 통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확립하고, 대시민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읍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은 8월 23일 오후 2시에 시작되며, 연습 대상은 정읍시 전 공무원 및 정읍시민이다.

훈련내용은 적 공습상황 대비 경보 발령,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 훈련,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훈련 등이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불안한 국내·외 안보상황 속에서 확고한 지역 안보태세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연습 준비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으로 내실 있고 안전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국제 잔류농약 분석능력 숙련도 평가서 '우수' 인정

3년 연속 신뢰성·우수성 입증

고창군은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주관하는 '국제비교숙련도평가(FAPAS :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서 3년 연속 잔류농약 분석능력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도내 농업기술센터 최초로 3년 연속 표준점수(Z-SCORE) 'Satisfactory(만족)' 판정을 받은 것으로 고창군의 잔류농약 분석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

국제 비교숙련도 평가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성분을 분석하여 검증하는 국제 평가대회로 정확도, 신뢰도가 높

아 매년 세계 각국의 정부나 연구소, 민간분석기관 등이 참여한다.

고창군은 평가기관의 오이 농산물 시료의 잔류농약을 분석하여 제출한 12개 농약 성분 분석값이 모두 적합 결과를 받아 자체 분석 능력에 대한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 "매년 국제 비교숙련도평가를 통해 잔류농약 분석에 대한 고창군의 우수한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창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간식 전달

말레이시아·포르투갈 청소년 1320명에게 농특산물 나눔

고창군이 세계잼버리 청소년들에게 고창 농특산물을 전달하며 식별의 정을 나눴다.

고창군은 지난 10일 전북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기숙사를 찾아 잼버리 영의활동을 하고있는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스카우트 대원 1320명에게 고창 농특산물을 간식으로 전달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5월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있는 마리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며 농특산물 수출, 유네스코 프로그램 협력, 행정교류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폭염,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프로그램을 이어나간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견하다"며 "북분자즙, 상하이즈, 고무마 말랭이 등 고창군 농특산물이 잠시나마 활력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스카우트 대표는 "고창군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며 말레이시아와 고창의 우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며 밝혔다.

포르투갈 대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 고창군의 특산물을 지원받아 영광이다. 대원들과 고창을 기억하며 폐영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고창군은 스카우트 기간 중 고창읍성, 선운사내에 54개국 4640명의 대원이 방문했다. 성곽 트래킹, 전문문화 체험, 템플 트래킹, K팝 댄스, 어드벤처 슈체험 등 다양한 영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세계 대원들에게 고창군을 알리고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의약 이용해 갱년기 극복해 보자'

정읍시보건소, '아름다운 4060 한의약건강교실' 참가자선착순 모집

정읍시보건소는 한의약적 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한 갱년기 증상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4060 한의약 건강교실'을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9주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교실은 우울감 및 갱년기 지수, 체성분 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한의약을 이용한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진행된다.

공중보건 한의사의 맞춤형 1:1 한의약 상담과 진료, 기체조 및 건강체조, 스트레스 완화 및 우울감 감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원예수업 및 내장산 탐방 숲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시 보건소는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갱년기를 겪고 있거나 예방에 관심이 있는 40대~60대 지역주민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시 보건소 한의약 담당자에게 전화접수(☎339-6135)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소식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만성질환과 우울증을 이겨내 대상자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정읍시, 우수 수렵인 30명 구성

정읍시는 수확기를 앞두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지침에 따라 상반기보다 5명을 더 총원해 우수 수렵인 30명을 선발해 구성한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소재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다. 포획한 동물의 사체는 렌더링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시에서는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해 포획 시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므로 산과 연결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며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 예방 등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